

민형배 시장 “어르신들의 의료·이동·돌봄 지원 강화”

무안서 30회 노인의 날 기념식…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주최
모범부부·복지 기여자 표창…전남광주 시군구 지회장 등 참석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5일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이동·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고, 가고 싶은 곳에 편하게 가고, 필요한 돌봄이 제때 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통합의 의미를 잘 아시는 어르신들이 ‘다시 하나 되길 잘했다’고 느끼는 전남광주를 꼭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가 주최한 기념식에는 민 시장과 김호승 전남경찰청장, 주병진 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 수석 부회장, 전남광주 시군구 지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다시 만난 전남광주, 더 커진 어르신 행복’을 주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공헌을 기리고 세대 간 존중과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극 ‘이수일과 심순애, 우리 이제 한 식구야’와 축하공연 등을 통해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된 의미도 나눴다.

이상계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은 “40년 만에 다시 하나 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압도적 성장을 위해 지혜와 경합을 나누주는 ‘어려다운 노인’으로 존경받길 바란다”며 “노인회의 발전과 화합, 활기찬 노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노인회와 모범부부, 노인복지 발전 기여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모범부부 표창을 받은 목포 강행복(88)·남순단(81) 부부는 63년간 함께하며 4남매를 키우고 경로당 회장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5일 무안군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 준수…정확한 정보만 취사 선택”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본사 1층 아카데미홀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승배 편집인·시장, 최현수 편집국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편집·광고·판매윤리강령 교육,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편집윤리강령을 통해 “취재 기자는 취재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취재원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취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정보도를 준수해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기사를 작성할 것과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사적인 특혜·편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진실을 존중해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주주 시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과장된 광고 내용이나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가구독자 유치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본사 1층 아카데미홀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선포식’을 진행했다.

광남일보 임직원 교육, 공정거래법 준수 강조

정가구독자 유치·단가 준수 등 정론직필 다짐

와 공정거래법에 맞는 규정 단가 준수에 대해 안내했다.

이 시장은 정가구독자 관리를 위해 구독 요청 시 상품 제공 금지와 무가치 배포 기간(2개월 이내) 준수, 구독료 원칙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등을 주문했다.

이승배 시장은 “신문 판매를 위해 물품이

나 편의 제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독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신문 배달을 해야 한다”며 “본사와 지사, 지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 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 이후 이어진 신문윤리강령 선서에는 정론직필로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며 언론 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제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담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담양, 평화온누리센터에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 선정…국비 5억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인구구조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군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어린이 놀이·체험 시설을 확충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담양형 어린이 체험·놀이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담양읍 반룡리에 건립 중인 평화온누리센터로, 군은 센터 내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험·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상 체험공간과 어린이의 신체활동 및 창의력 발달을 돕는 놀이시설, 영유아의 발달 특

성을 고려한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환경을 갖춰 어린이들의 놀이 기회를 넓히고, 인근 도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양육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엔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바탕으로 세부 공간계획과 시설 구성을 구체화하고, 2027년 시설 조성을 거쳐 어린이와 가족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종민 담양군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을 꼼꼼히 준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수자 기자 lss270@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소상공인 컨설팅 개최

중기부 종합상담회사 금융애로 현장 청취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최근 경영난과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오프라인 종합상담회에 참여해 경영컨설팅과 금융상담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종합상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최근 경영난과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오프라인 종합상담회에 참여해 경영컨설팅과 금융상담을 펼쳤다.

단,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재가지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남광주 지역 소상공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 상담을 제공했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지역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참여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경영 상황과 자금 여건에 맞는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경영진단 △정책자금(융자), 신용보증, 노무·마케팅 등 경영컨설팅 △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서민금융 △폐업·취업·재창업 등 재가지원 분야로 부스를 세분화해 운영했다. 참석자들의 상담 수요를 고려해 경영진단을 우선하는 ‘트랙A’와 금융상담을 우선하는 ‘트랙B’로 구분해 보다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햇살론 특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남신보SOS 경영지원·회생지원, 포용금융특별대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금융 문턱을 낮추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

“전문 기술 또한 나눌수록 커집니다”

광주도시공사, 무등육아원 시설 개선 봉사 펼쳐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노사 합동으로 ‘재능기부 특화형 아동양육시설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광주도시공사 임직원 30여 명은 15일 동구에 위치한 무등육아원을 방문해 아동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예초 작업과 데크 수리, 노후 벤치 및 축구 골대망 보수 등 내·외부 환경 정비를 진행했다.

동시에 사내 나누미 봉사단은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과 함께 공예 활동을 펼치

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눴다.

이번 봉사활동에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사전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의필요한 보수 사항을 파악한 뒤 해당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승남 사장은 “공사가 보유한 전문 기술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쳐 지역사회 이웃을 보듬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임직원은 15일 동구 무등육아원을 방문해 시설 개선 봉사 활동을 펼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당대학교는 지난 14일 해병대사령관에게 ‘장교 모병 우수대학’ 감사패를 받았다.

초당대학교, 해병대사령관 감사패 수여받아

우수 인재 양성·장교 모병 기여 공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당대학교(총장 서유미)는 지난 14일 해병대사령부 주요 장군단이 대학을 방문해 총장을 예방하고 ‘장교 모병 우수대학’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이동항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준장)을 비롯해 인재획득과장, 초당대 출신 해병대 장교인 문영식 소령(10학번·군사학과 출신) 등 주요 인사 3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그동안 우수한 해병대 장교 모병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한 해병대사령관 명의의 감사패와 해병대를 상징하는 대형휘장을 기증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학·군 유대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향후 장교 획득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다음 달까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병대 장교 진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초당대 관계자는 “해병대 우수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며 “앞으로 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